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정규예배 시 '생활 속 거리두기(1m)' 방침에 따라 본당 지정된 예배석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교회 안으로 들어오실 때, 설치된 '체온측정기구'를 사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하고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4. 오늘 오후에 시행하고자 했던 '봄맞이 전교인 대청소'는 여러 정황 상 연기합니다. 추후 사정이 나아지면 남·여선교회에서 결정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이번 주 토요일(4/17) 청소담당은 카자흐스탄 목장(권용기 집사)입니다.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4/18) 주일간식담당은 헝가리 목장(김금옥 권사)에서 섬기겠습니다.
6. 교우동정 : 김윤식 장로(유숙정 권사)님 가정이 롯데마트 뒤편에 위치한 지산빌로 이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4월 11일	4월 18일	4월 25일	5월 2일
예배기도(2부)		김윤식 장로	권용기 집사	이현호 집사	박성근 집사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추후 변경 가능)			
주일간식담당 (점심식사 No)		양떼목장 (황희용 권사)	헝가리목장 (김금옥 권사)	로템목장 (정진숙 권사)	한나목장 (이영선 권사)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주 토요일)	키르기스탄목장 (넷째주 토요일)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0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수술 후, 자택에서 회복중인 신동기 집사님, 최순애 집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3.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감동의 교회(원주)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중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교독문 30번(시 67:1-7)	다같이
*경배찬송 44장(통 56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285장(통 209장)	다같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김윤식장로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1부) 롬 9:27-33, (2부) 엡 1:3-6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1부) '남은 자란', (2부) '택함받은 자란'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153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허영진 목사
롬 10:1-12 '믿는 자는'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142)

새벽기도회 새벽 5:30 <하늘문의 만나>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니다.◆

무소의 뿔처럼 앞으로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라는 복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순풍에 돛 단 배가 아니기에 누군들 예외 없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삶에 자만해서도,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똑같은 일에도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의 크기가 다르듯, 따라서 자신이 찾는 가장 이상적 행복은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한 예로, "나는 때때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는지 자문한다. 만약 즐겁지 않다면 그 이유가 뭘지 생각해본다. 궁리 끝에 그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없다면 나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창의적 기업가로 유명한 리처드 브랜슨 영국 버진그룹 회장이 이야기하는 '재미'의 지향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치는 어떤 요소를 갖춰야 할까요? 이를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성공과 연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성공에 정답이란 없습니다. 다만 내게 맞는 답이 있을 뿐입니다. 곧, 다른 사람 마음에 들자고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 물질이나 권력 같은 수단적 가치도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수단적 가치는 말 그대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단은 진정한 가치 만족을 가져다줄 수 없기에 채우고 채워도 허기가 지게 마련입니다. 요즘 시국에 사람들이 입에 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는 게 지옥 같다"는 말입니다. 이는 결국 무거운 바위를 끊임없이 밀어 올려야 했던,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Sisyphus)의 저주가 따로 없습니다. 가치 없는 것에 대한 무한 반복의 삶입니다.

궁극적인 만족을 가져다줄 수 있는 목적적 가치 설정이 중요한 건 그래서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가치는 '상생(相生)'을 지향해야 합니다. 혼자 잘 먹고 잘살자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가치는 중국에는 원치 않는 결과를 곧잘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이타적 가치를 말합니다. 요컨대 진정한 성공을 하려면 내 성공을 정의하기 위한 가치 설정이 중요하며, 그런 가치는 내 것이어야 하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하며, 상생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누구나 예외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조금만 더 배려한다면 서로에게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무소의 뿔처럼 믿음의 용기를 내어 앞을 향해 두벅두벅 걸어간다면 진정한 성공에 이르지 않을까 확신해 봅니다.

Written by 허영진